

2026년 9월 21일

Hana FX Daily Letter

포다시 고개 든 엔화 개입 경계감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엔화 약세 제한에도 수급 요인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80~1,390원

■ **지난주 BOJ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이 부각되며 약세 흐름이 잠시 주춤해졌음.** 이에 강달러 압력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환율 상방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다만, 환율 추가 상승을 경계하는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는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이를 반영하며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8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4.0원 오른 1,385.5원 마감**
장 초반, 연준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강달러에 1,380원대 후반까지 상승. 이후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물량이 유입되자 오름폭을 반납, 1,383.3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 달러 강세 흐름 지속되자 1,390원선 터치했으나, BOJ 레이트체크 소식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 속 1,380원대 중반으로 상승폭 축소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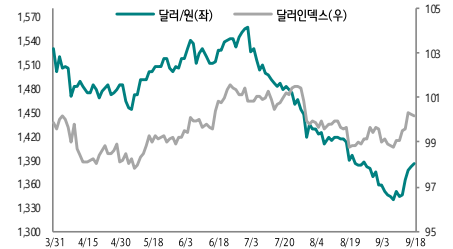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으나, BOJ의 시장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화 강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달러는 소폭 약세를 나타냄
- **(유로-달러)** 유로존 주요국들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 **(달러-엔)** BOJ의 긴축 결정에도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엔화는 약세 압력 받았으나, 이후 당국의 레이트체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폭을 일부 되돌림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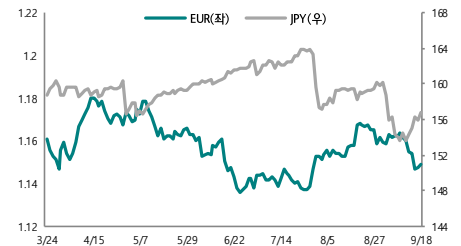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향방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들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지난주 개최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며 '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레벨에 도달했음. 그러나 이후 추가 긴축 속도는 완만할 것'이란 전망과 9월 FOMC의 금리인상 영향이 겹치면서 엔화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임. 다만, 주말 사이 일본 외환당국이 레이트체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개입 경계감이 고조됨.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경우,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금주에는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음. 앞서 9월 FOMC를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긴축 가능성이 열려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번 연설에서 매파적 메시지가 부각될 경우 강달러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 격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연준의 추가 인상 경계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1,30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82.2	1,390.2	1,379.7	1,386.8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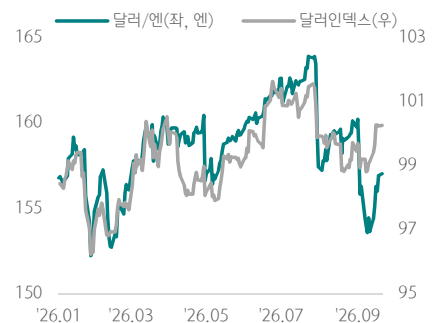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86	156.87	6.6954
전일대비	+0.0010	+0.89	-0.0083
재정환율	1,592.9	883.92	207.13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15	중국 대졸 우대금리(1년)	3.0%	3.0%
19:30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엔화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